



수일리와 수일이

김우경 글 / 권사우 그림 / 우리교육

손톱을 함부로 버려 그 손톱을 주워 먹은 쥐가 사람 노릇한다는 옛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옛이야기에서 가져왔어요. 손톱을 먹은 쥐가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을 대신한다는...

수일리는 항상 학원을 다니느라 바빠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수일리는 드디어 힘든 학원 생활을 끝내기 위한 방법을 찾았죠.. 수일리의 개 덕실이가 노는 방법을 알려주자 수일리는 쥐에게 그 방법을 시험해 본답니다. 자신의 손톱을 잘라 쥐에게 먹이자 정말 다음 날 쥐가 자신과 같은 수일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가짜 수일리는 한번 학원에 가더니 학원에 가기 싫다고 반항해요. 그러자 수일리는 방학이 끝나면 돌려보내주겠다고 하죠.

진짜 수일리는 학원에 가지 않으니 시간이 많아 친구들과 맘껏 놀아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데, 하루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자 덕실이가 수일리네 가족이 해수욕장에 갔다고 해요. 졸지에 혼자서 며칠을 보내게 된 수일리는 덕실리와 함께 빈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가짜 수일리가 돌아오자 수일리는 다시 쥐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가짜 수일리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며 거절을 해요. 뿐만 아니라 수일리를 내쫓으려고 하죠. 수일리는 가짜 수일리를 없앨 방법을 찾다가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진짜 수일리는 가짜 수일리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짜 수일리가 준 빵을 먹고 덕실리와 함께 생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가족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들고양이 방울이의 도움을 받는 방법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울이의 도움을 받아 진짜 수일리와 덕실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글은 결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방울이의 도움을 받아 진짜 수일리가 가짜 수일리를 쫓아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야 할까 봅니다.

마음열기

1. ‘내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는 언제인가요?

2. 만약 내가 하나 더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가짜 나와 진짜 내가 벌이는 하루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책속 들여다보기

1. 학원에 가기 싫어 “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수일에게 덕실이 알려 준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수일이는 손톱과 발톱을 깎아서 어디에다 버렸나요?

3. 가짜 수일에게 학원에 가라고 한 후 진짜 수일이는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냈나요?

4.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온 수일이 하루 종일 놀다 와 보니 덕실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식구들은 모두 어디에 갔나요?

5. 여행에서 돌아온 가짜 수일이는 갑자기 옛날 모습인 쥐로 돌아가기 싫다고 했어요. 왜 그랬나요?

6. 가짜 수일을 쫓아내기 위해 수일이는 태호네 고양이를 이용해 보지만 소용이 없게 됩니다. 가짜 수일이는 왜 태호네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7. 가짜 수일을 쫓아내기 위해 2층 할아버지가 알려 준 방법은 무엇인가요?

8. 수일리와 덕실이는 어떻게 해서 쥐로 변하게 되었나요?

9. 야생 들고양이 방울이가 쥐를 쫓아주는 대신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요?

책 속 내용 이해하기

1. 가짜 수일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수일이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또 어떤 것들이 불만이었나요?

2. 가짜 수일이를 자기 자리에 얹혀 놓고 밖으로 실컷 놀러 다니면서도 수일이의 마음 한 구석은 편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3. 가짜 수일이는 진짜 수일이가 하기 싫어하던 일을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치던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지요. 가짜 수일이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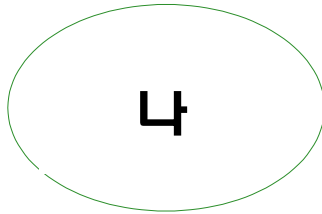
4. 길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책 깊이 들여다보기

1. 진짜 수일이에게는 가짜 수일이가 흉내 낼 수 없는 점들이 있어요. 진짜 수일이가 잃어버리지 않은 수일이다운 모습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내가 수일리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 말을 잘 믿어주지도 않는 엄마에게 내가 진짜라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나는 어떤 아이인가요? 내가 가진 나만의 진짜 모습을 생각하면서 생각그물로 정리해보세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 뒷 이야기 이어쓰기

수일이가 야생 들고양이 방울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 동화는 끝이 납니다. 수일이는 과연 가짜 수일이를 잘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가짜 수일이를 쫓아낸 후 새롭게 닥친 갑실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수일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가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써 보세요.

동네가 가까워졌다. 낮익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